

<번역 논문>

읽혀질 수 없는 번역: 여성의 참여로 얻을 수 있는 성경 번역의 질적 향상과 가독성¹⁾

마르타 웨이드* 저/ 기민석 번역**

1. 들어가는 말

행 8.27 (특 피진)²⁾: ... Em i wanpela bikman long gavman bilong kwin o Kandasi bilong wanpela kantri long Afrika, na em i save ʘosim olgeta mani samting bilong kwin. Em wanpela man ol i bin rausim bol bilong en.

위 번역의 문자적 의미: ... 그는 여왕의 혹은 아프리카 어느 한 나라인 간다게의 행정에 있어 중요한 사람이며, 여왕의 모든 돈을 맡고 있었다. 그는 고환이 제거된 남자였다.

어느 교실에서 나는 특 피진 번역의 사도행전 8:27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 교실에는 파푸아뉴기니의 마당(Madang)과 동세피크(East Sepik) 지역의 다섯 언어 군에서 온 선생님들이 계셨고 모두 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었다. 그 구절을 읽은 후 교실에는 무거운 적막이 흘렀다. 이 구절이 교회에서 읽혀질 수 있겠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들은 모두 그럴 수 없다고, 점잖지만 확고하게 대답하였다. 남녀가 같이 있는 곳에서 여성이 이 구절을 읽어야 한다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는 것이다. 그 다음, 구약 성경에서 할례를 언급하는 몇 구절들도 읽어드렸다. 창세기 21:4 (*katim skin bilong kok bilong pikinini* = “그의 아들의 성기의 피부를 잘랐다”)와 같은 구절들인데, 계셨던 선생님들 모두 훨씬

* 저자는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파이오니아 성경 번역 위원회(Pioneer Bible Translators)의 번역 자문 위원이며,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서도 명예 번역 자문 일을 하고 있다.

** 꿈의 교회(기침) 협동목사, 구약학.

1) 원문: Martha Wade, “Translations that Cannot be Read in Church: Using Women’s Groups to Improve the Quality and Readability of a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63:2 (2012), 81-86.
2) (이하 모든 각주는 역자의 해설임) Tok Pisin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사용하는 공식 언어로서 영어에 기반을 둔 혼합어다. 역사가 길지 못하여 아주 보편적이지는 않다. 특히 노년층에서 그러하다.

더 강하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런 구절들이 교회에서 절대 읽혀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그 후,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를 훈련 양성하는 어느 성서 전문 학교에서도 같은 구절들을 읽었고 그 반응을 살펴보았다. 역시 반응은 같았다. 끝으로 나는 동세피크 지역의 두 언어군에서 온 분들 앞에서 이 구절들을 읽고 반응을 살펴보았다. 모두 구약 성경 번역자 훈련 과정에 있는 분들이었다. 반응은 역시 부정적이었으며, 이어서 그들은 자기네 언어군에서 출간된 역본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할레”와 같은 단어들을 번역 할 때 완곡어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어왔다(de Waard 1971; Gross 1999; Unseth 1996). 사실 대부분의 언어는 완곡어법을 가지고 있으며 그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에 전혀 모자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말한 경우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번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번역자와 번역 점검단이 완곡어법 사용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인식을 잘 못하는 이유는 번역 점검을 주로 남자들이 하거나 남녀가 같이 하더라도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만큼 적은 수가 참여하기 때문이다.

비록 짧은 글이지만 나는 성경의 초기 번역 원고를 점검하는 과정에 여성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로 인해 번역의 수용성이 개선되고 질적 향상도 이루어 질 것이다. 여성은 본문의 어느 곳에 완곡어법을 사용해야 할지 잘 발견할 것이며,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 구조도 잘 찾아낸다. 그 관용적인 용례 때문에 어떤 단어가 의도치 않게 잘못 번역되는 실수도 여성은 잘 발견해낼 것이다.

2. 완곡어법의 필요성

처음 내가 사도행전 8:27의 번역을 문제 삼았던 때는 거의 20년 전이었다. 동료 번역 자문 위원에게 이 문제를 말하였지만, 처음에 그(남자)는 별 문제 없을 것으로 여겼고 더 점검은 해보겠다고 말해주었다. 이 후, 그는 이 구절이 남녀가 함께 있는 곳에서는 읽혀 질수 없었노라고 내게 확인해 주었다. 문제점을 인식한 이 번역 자문 위원은 나중에 다른 언어군에서 사도행전 번역을 점검하고 개정하는 일을 도와주게 되었다. 특히 그들은 이 구절을 놓고 작업을 하였다. 그 초안은(예문 1) 문맥상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과 연속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앞의 사건이 두드러져 보이는 문제점이 있었다. 결국 이 초안을 수정하여 출간하게 되었는데, 이 출간된 번역문(예문 2)도 세 명의 남

자, 한 명의 여성과 논의하여 보았다. 남자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반응하였고, 여성도 이에 반대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 여성은 논의가 끝난 후 다른 여성 자문 위원에게 찾아가서 바뀌어야 할 단어가 있다고 말을 하였다. 남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읽혀져서는 안 될 단어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 여성의 의견이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남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여성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가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예문 1: 사도행전 8:27하반절 번역 초안

Molok lol mayen, liba maiñ dapat litinap kal, miba Itiopia maak
Kandasi daiñ nagat laalo mep.

“그 남자는, 그 고향이 제거되었고 [바로 연속되는 행위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돈을 맡아 돌보았다.”

예문 2: 사도행전 8:27하반절 출간문

Molok lol mayen, liba maiñ dapat litinap ma. Miba Itiopia maak
Kandasi daiñ nagat laalo mep.

“그 남자는, 그 고향이 제거되었다. 그는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돈을 맡아 돌보았다.”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파푸아뉴기니의 네 언어군에서 실행한 조사에 의하면, 세 언어군에서는 남자만이 번역과 점검, 논평 과정에 참여하였다. 한 언어군에서만 총략 별 12~20명 가량으로 구성된 팀들이 참여하였는데 이 중 여성이 약 25퍼센트 정도 차지했다. 여기에는 여성 번역자도 한 명 있기에 벌써 다른 언어군과는 남달랐다. 번역 점검과정에 참여한 이들과 교류해 본 결과 알 수 있었던 것은, 파푸아뉴기니에서 이루어지는 번역이 대부분 남성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여성의 참여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파푸아뉴기니의 여성은 남자들만큼 교육을 받지 못하는 편이며 그들 사회에서 권위 있는 존재로 여겨지지도 못한다. 때문에 번역 과정에서 여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흔치 않았던 것이다.

특 피진 성경 번역에 대한 역사 기록이 남겨진 것이 없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나는 대화 가운데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주요 번역자나 점검자 중에 여성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번역 초안을 점검 할 때에는 몇 명의 여성이 참여하였었죠. 하지만 그들이 어떤 중요한 제안을 했었는지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당시 초안을 만들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교사들이었다고 했다. (Norm Mundhenk, 이메일 메시지, 2010년 2월 25일)

특 피진역 성경에 이렇게 읽혀지기 어려운 구절들이 남겨지게 된 것에는

몇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 먼저, 번역자들이 적어도 *katim skin*(할례를 뜻하기 위해 사용된 번역 중 하나)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을 만들려고 했다. *katim skin*은 할례가 아닌 다른 뜻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몸이 붓거나 아플 때 그 부분의 피부를 잘라내는 이곳 풍습이 있는데, 주로 잘라내는 부위가 이마나, 팔뚝, 무릎 아래쪽 다리 부분이다. 둘째, 번역 작업에 참여 하였던 이들 중 일부가 해부학적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던 외부 지역의 의사들이었다. 병원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용어가 정확히 사용되어야 하겠지만, 내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파푸아뉴기니 의료인들도 촌락에 있는 일반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이런 용어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끝으로, 통상어³⁾에 사용하는 완곡어는 종종 특정 지방어의 완곡어를 직역한 경우였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서 유래한 완곡어가 다른 지역에서는 잘 이해되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툭 피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katim skin bilong sem bilong ol* (“그들의 수치의 피부를 자르다” - 수치는 성기를 표현하는 완곡어)이 있다. 하지만 이 표현이 나라 전체에서 모두 올바르게 이해되거나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툭 피진 성경은 남자들에 의해 번역되었고 점검도 주로 남자 혹은 모국어의 성향을 잘 모르는 외부인에 의해 점검되었다. 이로 인해 툭 피진 성경에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여러 용어들이 남겨지게 되었으며 다음에 이 성경이 개정 될 때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확한 용어를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서는 각주에 자세한 해부학적 용어를 넣으면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여성들에게 반드시 의뢰하여 본 다음에 결정해야 할 문제이지만, 각주는 대개 공개적인 곳에서는 읽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타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⁴⁾

3. 자연스럽지 못한 번역

여성들은 남자들에 비해 외부의 영향에 덜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자연스러운 어감인지 느끼는 것에 남자들 보다 더 예민하다. 아팔어⁵⁾ 번

3) 통상어(trade language)는 여러 개의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언어를 말한다.

4) 여성들을 배려한 완곡어법 사용 문제는 한글 성서 번역에 있어서도 제시되어야 할 사안이다. 예를 들어 ‘창녀’나 ‘첩’, ‘과부’같은 단어들로 인하여 여성들이 성경 읽기에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완곡하지 못한 표현들로 인해 여성들이 성경 읽기에 소외감을 느껴서는 안 될 것이다.

5) Apal어는 파푸아뉴기니의 언어 중 하나다.

역 초기에 “땅 한 쪽”(a piece of ground)을 *fili cikanj*으로 번역했는데, 여성들이 이에 크게 반대하였다. 남자 번역가들이 너무 문자적으로 번역을 한 것이었고, 역시 남자들로 구성된 점검 과정에서 그만 통과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법이 어디 있냐? *fili tibi* 라고 말하지.” 하며 한 소리 하였다. 남자들이 어쭙잖게 반발하긴 했지만, 땅의 한 부분을 표현하는 것에 여성들의 의견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결국 인정하였다. 그 이후부터 번역에 관한 여성들의 의견에 남자 위원이 반박하게 되면, “*fili cikanj*을 상기하자!”며 다른 남자들이 말하곤 했다. 이 곳 여성은 성서에 무지한 편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구절들을 더 신중하게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자연스럽게 못한 표현뿐만 아니라 잘못 사용되는 표현들도 여성들은 잘 찾아낸다. 그 한 예로, 아 팔어가 사다리/계단을 표현하는 데에 가졌던 어려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다.

전통적으로 이 지역 모든 집들은 바닥이 그냥 땅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다 사람들이 외부 지역과 접촉이 잦아지면서 땅으로부터 1미터 내지는 1.5미터 위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이 집에 올라가기 위해 사람들은 작은 나무 막대를 집에 기대어 놓고 사용하였다 - 이 막대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미끄러졌는지 모른다. 꽤 높이 있는 집들을 위해서는 통나무에 약 2.5센티미터나 혹은 발이 거의 다 들어갈 만한 홈을 파서 기대어 놓기도 했다. 그 마을에 머무는 동안 나는 한 번도 사다리나 계단을 의미하는 명사를 들어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번역할 때 어떡하든지 계단을 묘사할 표현을 찾아야만 했다. 번역자들은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는 길” 즉, *iahuiahu migumigu hibi* 를 제안했다. 제법 괜찮은 표현이라 여겨져서, 사다리나 계단을 표기해야 할 경우 늘 이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여성들로 구성된 번역 점검 팀과 작업을 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정확히 바울이 계단 어느 편에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표현이 뒤바뀌어야 한다면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 아니라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음에 나는 순서가 무슨 상관일까 생각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남자 번역자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바울이 계단 어느 편에 있었는지 물어보았고 조용히 틀렸음을 인정하였다. 그들에게는 계단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바울처럼 사람이 계단 위에 있으면 “아래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는 길”이라고 써야 하며, 야곱이 환상에서 본 사다리일 경우 사람이 사다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묘사해야 한다. 그 이후 나는 사다리를 말해야 할 경우 무척 신중해야만 했다 - 나는 자주 아래층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4. 관용구로 인한 오류

“이 초안은 별로라네요. 여성 점검단이 그랬어요.” 최근에 나는 나라의 번역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전달하고 히브리서 1:14상반절을 읽어드렸다. “그가 말했다, ‘머리에서 말하는 이들[천사들]은 몸/살이 없는 이들[육체가 없는 이들]이며,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아팔어에는 ‘영’을 뜻하는 일반적인 단어가 없다. 그래서 이 구절을 제대로 번역하는 데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다: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을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새번역). 번역위원들은 잠시 번역의 정확성에 대해 논의를 해보려는 것처럼 보였다. 이 때 한 위원이 “아하~” 하고 말하고 웃음을 지었다. 바로 “몸/살이 없는”이란 표현의 관용적 용례 때문이었다. 천사들이 몸/살이 없다는 표현은 몸무게가 크게 줄어 피골이 상접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서양에 있는 전형적인 거식증 환자 같은 천사나 파푸아뉴기니의 폐결핵 중증 환자 같은 천사의 모습이다. 피골이 상접한 천사로 인해 우리 모두 낄낄거리며 웃었고, 다시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 고심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번역해 보았다. “그가 말했다. ‘머리에서 말하는 이들 [천사들]은 우리 사람과 같은 육체가 없다. 이들은 그림자 같은 존재여서 왔다 갔다 하며 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림자”는 정글에 있는 어떤 것이나 물웅덩이, 큰 나무 안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영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천사들을 인간과 같은 육체는 없으며 이런 종류의 영들과 비슷한 존재로 묘사하였다.

번역 점검단에 있는 여성들에게 또 하나 물어보았던 것이 있다. “불에 타는 것으로 집을 지은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들은 곧 이렇게 대답했다. “그 집이 다 타버릴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죽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단지 늘 불에 그슬려 있기는 하겠지만요.” 불쌍하게도 그 남자가 어떤 상태가 될런지 그들은 더 자세하게 묘사해 나가기 시작했다. 그 남자는 고구마를 구울 때 생기는 일처럼 같은 그슬리고 속은 익지 않아 사람들에게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다고도 하였다. 더 두었다간 마치 조나단 에드워즈의 유명한 설교, “분노한 하나님 손아귀에 놓인 죄인들”과 같은 이야기로 흘러갈 것만 같았다. 나는 토론을 중지시키고, 초역이 완전히 잘못 되어 수정을 해야겠다고 알렸다. 고린도전서 3:15의 초역은 이 여성들의 반응과 비슷한 쪽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그 일꾼, 그 사람 자체는 나빠지지[죽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것이든 우리가 불 속에 놓

거나 (불) 바로 옆에 놓아둔 것처럼 되어버릴 겁니다.” 아쉽게도 이 초역은 본래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와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이해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15하반절; 새번역) 이 구절이 본래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여성들에게 설명해 드리자 서로들 수군거리며 이렇게도 말하였다. “다른 촌락에 사는 남성들이 점검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우리 촌락 남자들이 했으면 잘 했을 텐데 말이야.” 이렇게 여성 점검단은 오히려 그들이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르는 바람에 번역의 오류를 잘 잡아낼 수 있었다.

5. 나가는 말

특 피진역 성경이 사용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이 역본은 파푸아뉴기니 북쪽 지역의 많은 지방 언어 성서 번역에 기초가 된다. 적절한 번역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용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문제점이 제시되어 왔고, *The Bible Translator*의 논문 중 적어도 한 편 이상이 이 문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파푸아뉴기니의 촌에서 살고 있는 여성, 어느 모임에서든지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이 여성들에게는 수용성이 절대 문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들에게는 성경이 “완곡해야만” 한다(Gross, 2003).

파푸아뉴기니의 여성은 성경 번역의 점검 작업에 매우 유용한 인적 자원이지만 아직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였다. 많은 여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번역 점검 과정에 적은 수만 참여해 왔다. 여성의 참여가 더 강화된다면 번역에 완곡어법이 더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 번역을 읽을 대중들에게 더 쉽게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 참여는 번역 문장을 더 매끄럽게 만들고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내고 수정하는 작업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참고문헌>(References)

- de Waard, Ian., "Do You Use 'Clean Language?' Old Testament Euphemisms and Their Translation", *The Bible Translator* 22:3 (1971), 107-115.
- Gross, Carl, "Acceptability-The Supreme Translation Principle?", *The Bible Translator* 54:4 (2003), 424-434.
- Gross, Carl, "Circumcision in the New Testament: Translating without Embarrassment", *The Bible Translator* 50:4 (1999), 422-427.
- Unseth, Peter. "Teaching the Translation of Euphemisms", *Notes on Translation* 10:2 (1996), 35-40.